

# 창조경제에서의 SW스타트업 역할과 이슈

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
유호석 선임연구원  
2015.05.26

<SPRi포럼 발표자료>

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Think Tank

 **SPRi**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
SOFTWARE POLICY & RESEARCH INSTITUTE

# 창조경제에서의 SW스타트업 역할과 이슈

1. 현황 : 창업 생태계와 SW스타트업
2. SW스타트업 이슈 및 대안
3. SW스타트업 성과 분석
4. 정책 시사점

# 국내 창업 현황 - 자영업vs.기술창업

## • 생계형 자영업에 편중된 창업실태는 국가 창업정책의 이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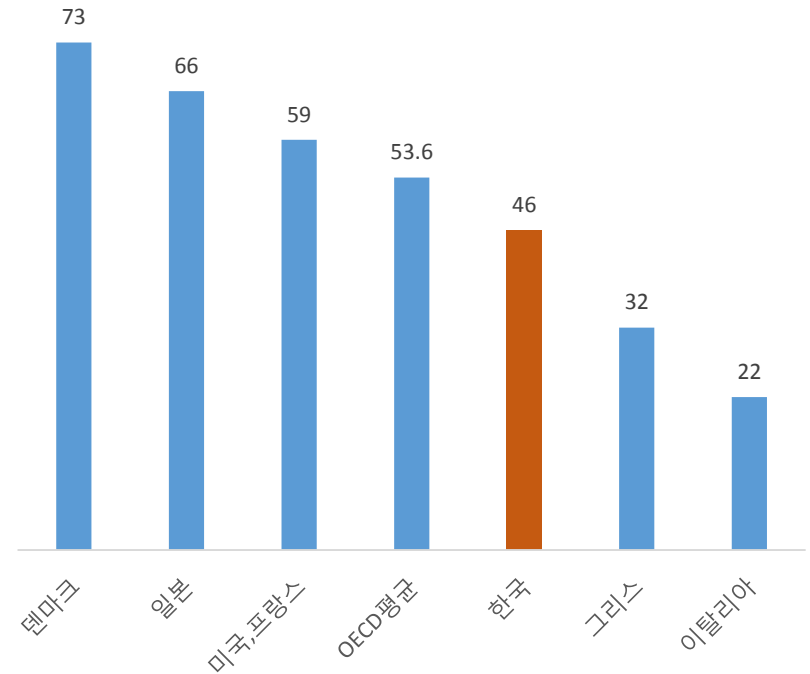
- 자영업 공급과잉 → 낮은 생존율/매출/이익/일자리 → 가계부채 → 경제 악영향
- 반면, 기술창업은 자영업(숙박/음식) 대비 매출 7배, 이익 4배, 일자리 2.5배이나

### < 국내 기술창업 비율 23%에 불과 >

구분		비중	매출액 (만원)	당기이익 (만원)	일자리 수(명)
기술 창업	제조업	8.7%	88,406	6,031	6.4
	지식서비스업	14.6%	60,356	7,039	4.6
	<b>기술창업 계</b>	<b>23.3%</b>	70,681	6,686	5.3
자 영업	도매/소매업	29.2%	47,315	2,497	1.9
	숙박/음식점	27.1%	9,900	1,707	2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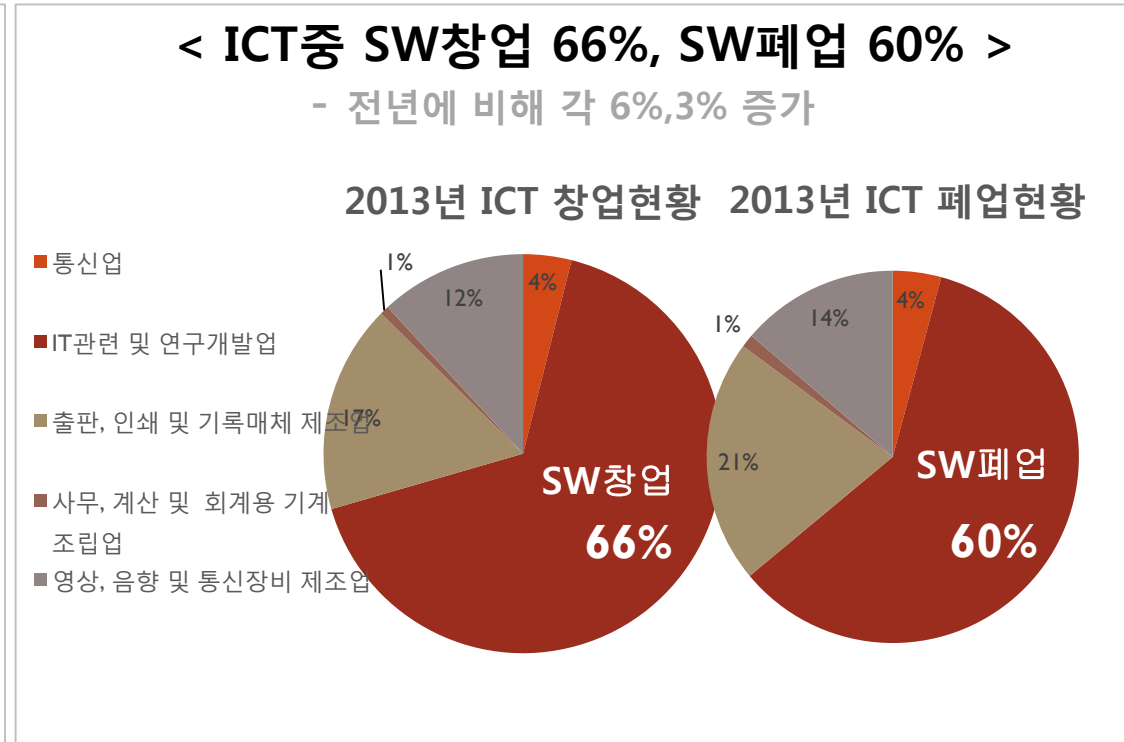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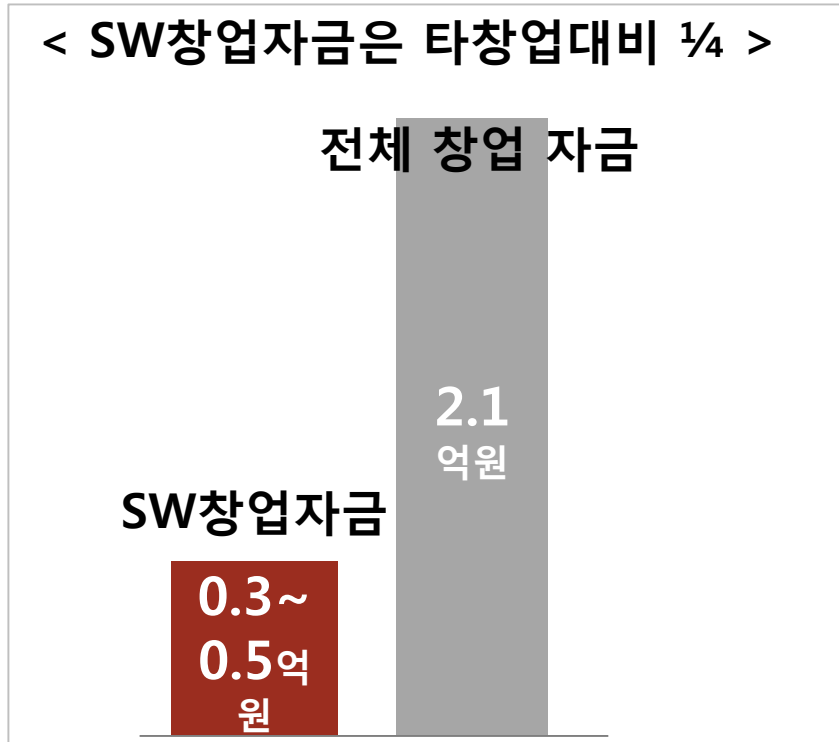
- 출처 : 중소기업청&창업진흥원, 2013 창업기업실태조사

### < 국제비교로도 낮은 기술창업 >



- 출처 : 2013 GEM(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)  
 : 생계형 창업의 반대인 기회형 창업 (Improvement-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) 비율임

## • SW스타트업은 창업시점 필요자금이 적으며,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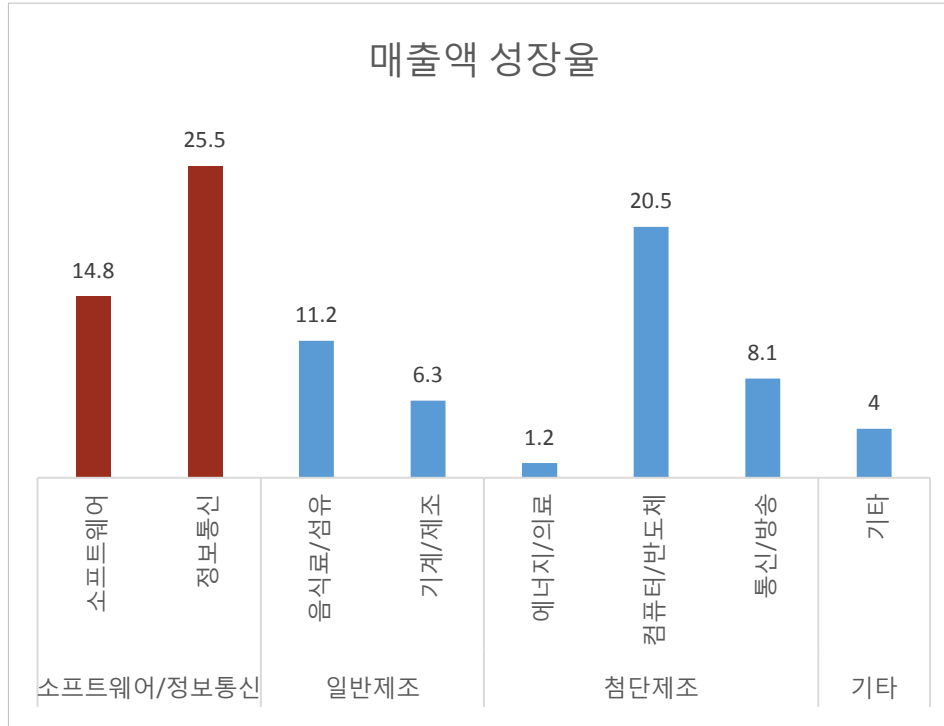
1) 출처: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, <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> 중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임  
 - 모바일SW/광고, 게임, 소비자SW, SNS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e커머스, 결제, 컨설팅, 보안  
 2) 출처: 중기청&창업진흥원, 2013 창업기업실태조사

출처 : 국세청, 2013~14년 국세청 통계연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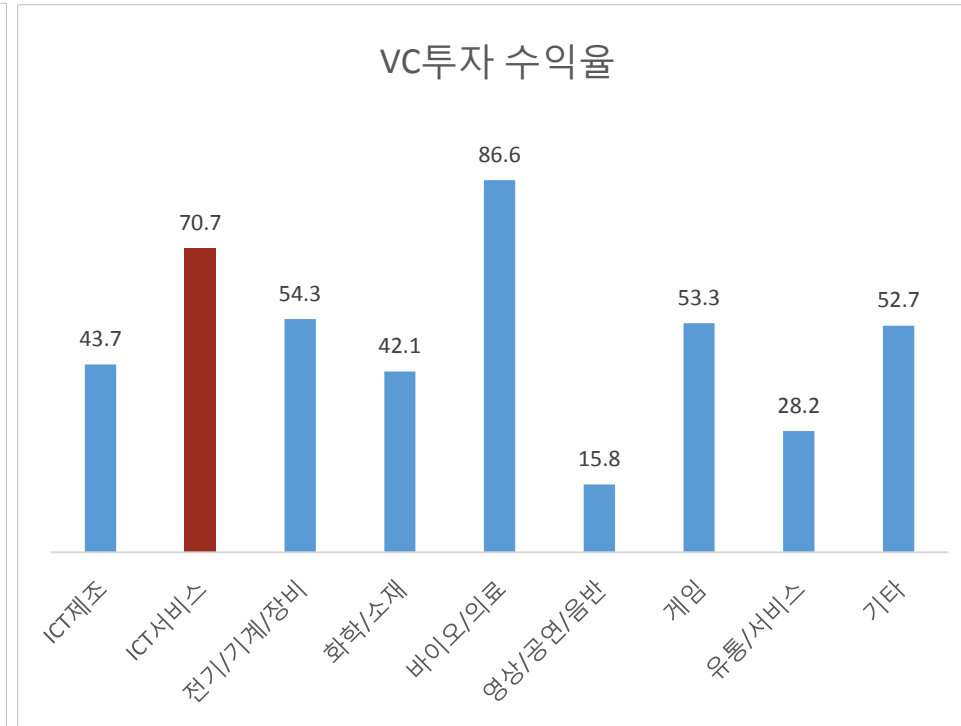
**SW스타트업은 도전하기가 쉬움**

## • SW벤처의 성장률과 VC투자 수익률

- SW벤처 매출액 증가율 최고, SW비중 높은 IT서비스 벤처 투자수익률 70%상회



출처 : 벤처기업협회 <2014 벤처기업 실태조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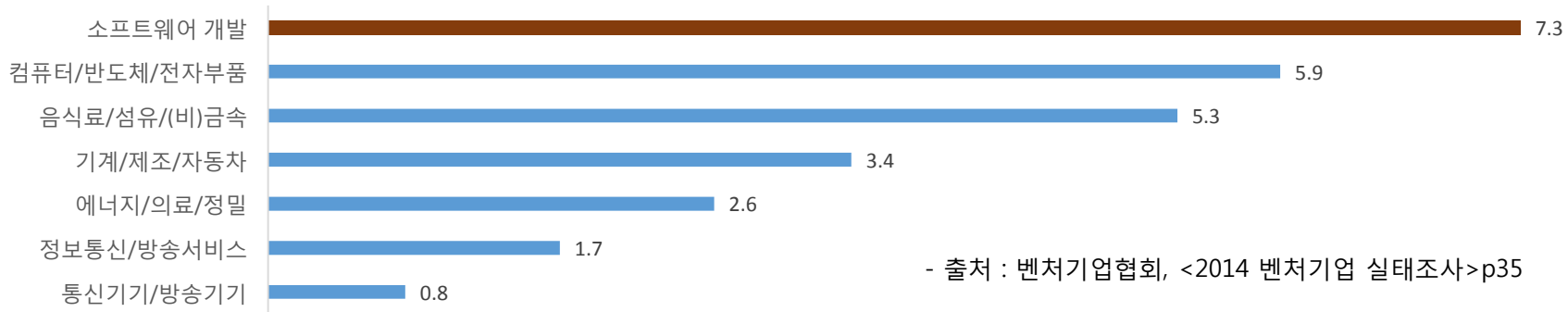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, <2014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>

**SW스타트업은 빠른 승부가 가능**

## • 벤처기업 중 SW업종 일자리 증가율이 7.3%로 최고

2013 벤처기업 인력 증가율 (단위:%)



- 출처 : 벤처기업협회, <2014 벤처기업 실태조사>p35

## • 스타트업 중 SW비중 높은 업종의 인력채용 계획이 30.7%로 전체평균 7.1%에 비해 월등히 높음

- 출처 : 창업진흥원, <2014 창업기업 실태조사>p152 중  
출판,영상,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 채용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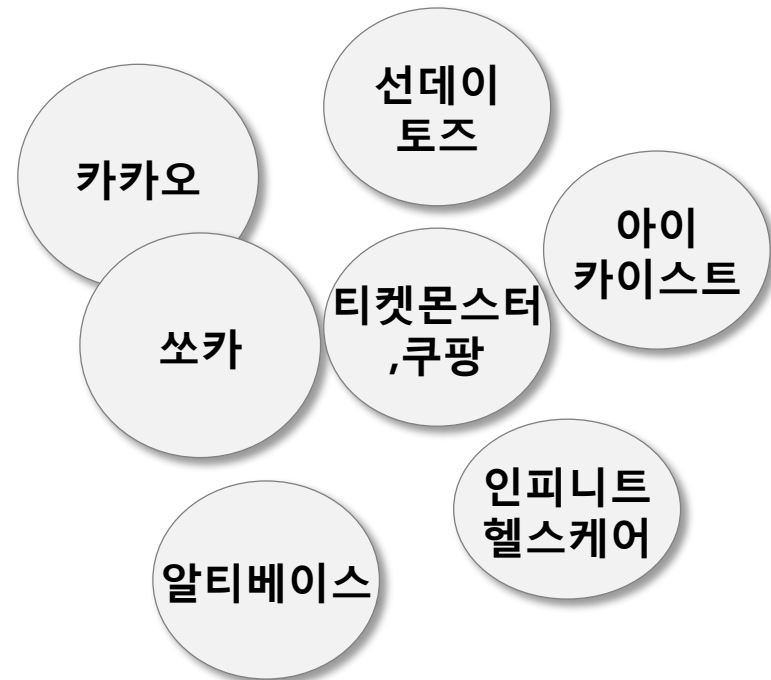
**SW스타트업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함**

## • SW생태계에서의 스타트업의 역할

### Dynamics of SW

빠른 기술변화	•IoT,인공지능,오픈소스,O2O,.....
외부지식의 흡수	•차별화된 지식/기술력 추구
경계파괴	•타 산업 융합 •온라인-오프라인 구분 파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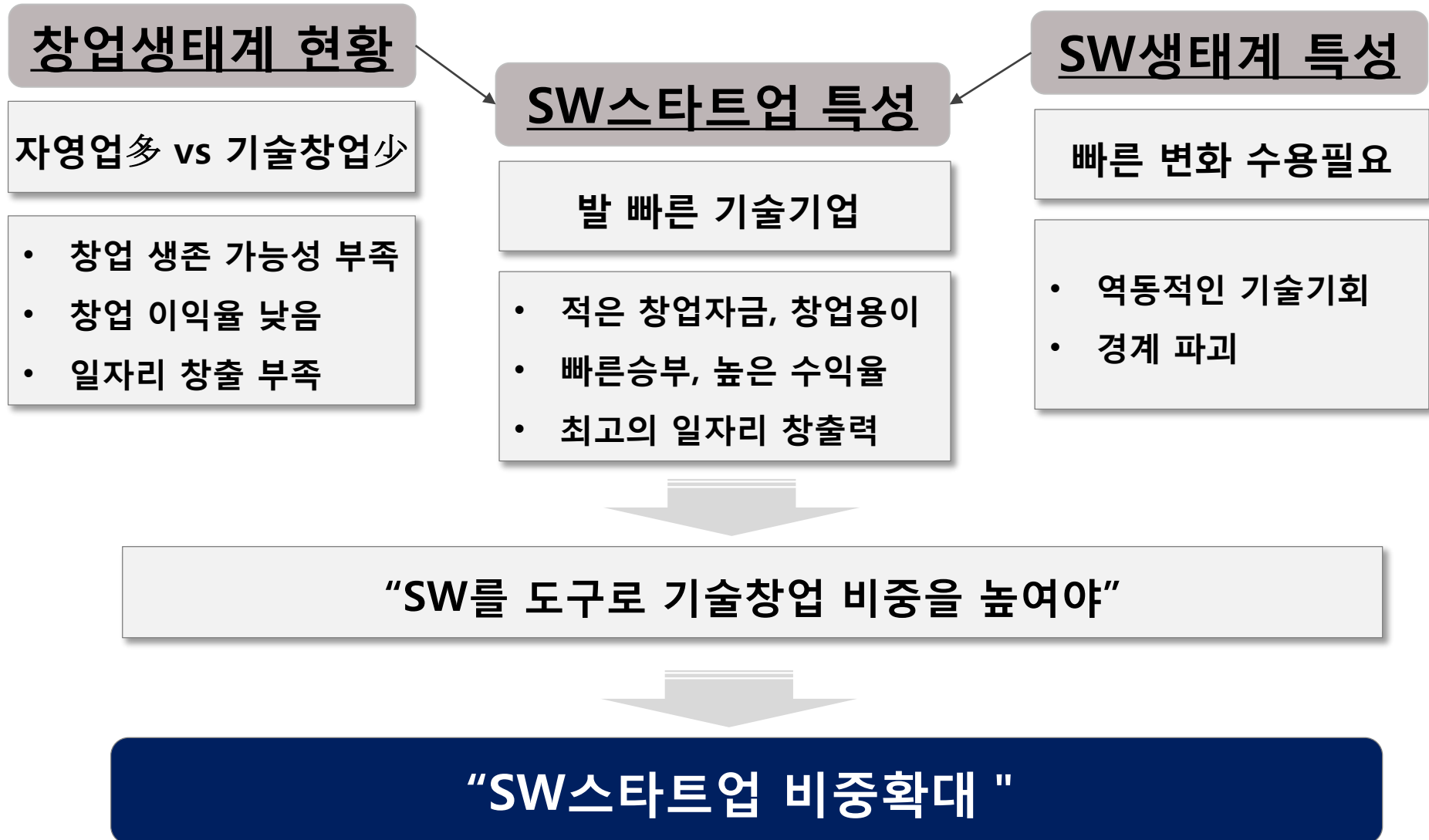
### 스타트업 출신 SW회사



\*1,000억 가치 이상의 인터넷 스타트업 중 발체  
또는 2000년 이후 설립한 국내25위 내 패키지SW 회사

**SW생태계의 역동성에 스타트업은 필수적인 역할**

## • SW스타트업은 창업생태계와 SW생태계의 성장 엔진





- 인터뷰, 설문조사를 거쳐 바람직한 SW스타트업 대안모델 도출



- 인터뷰 결과 : SW창업가 8명, VC/엔젤 3명, 창업지원기관 2곳
  - “부족한 창업가”, “기술력 부족”, “M&A미약”을 대표문제로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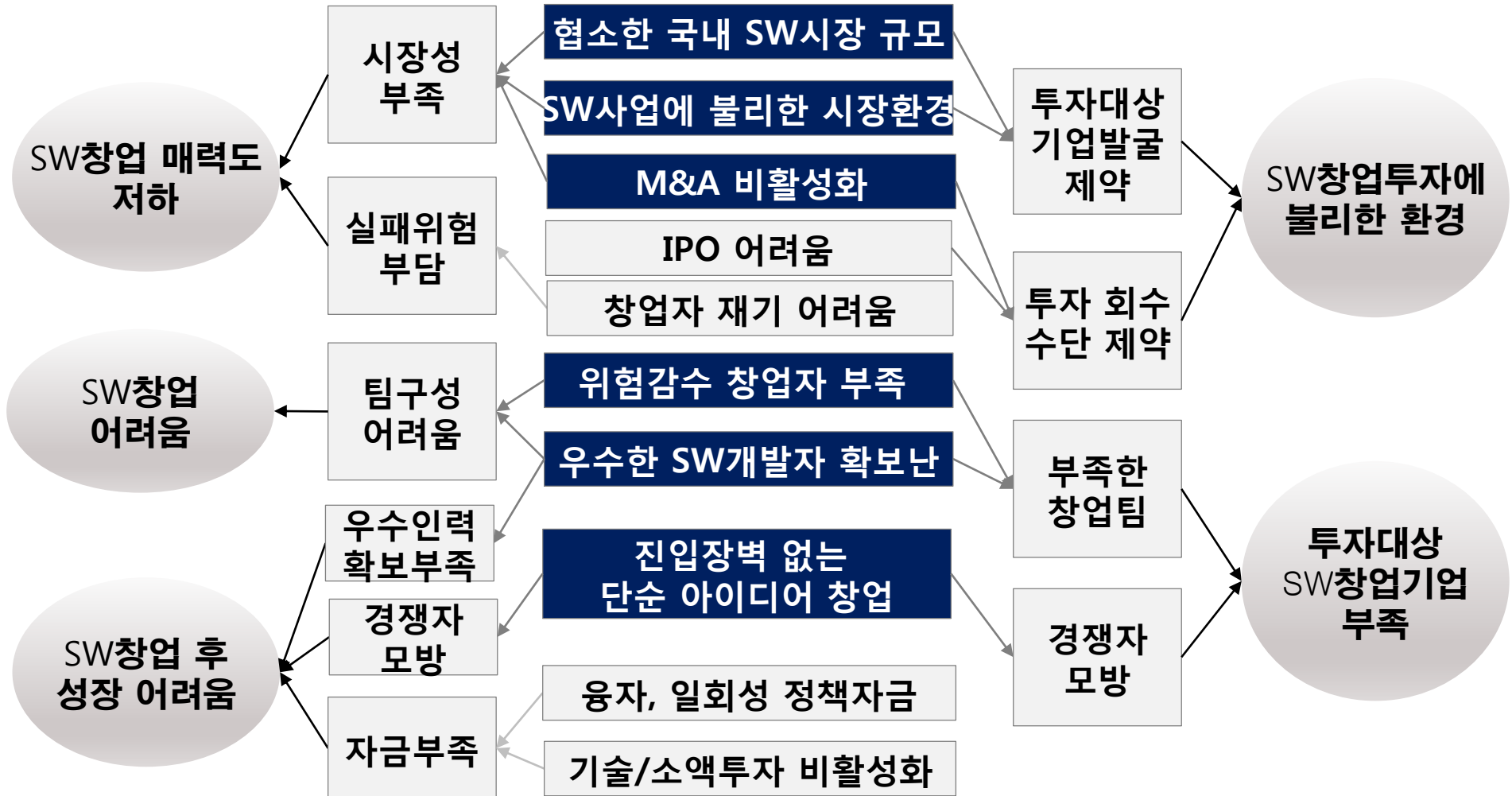
구분	문 제 점
제도/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SW스타트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에 진입장벽</li> <li>- 코스닥IPO장벽이 높아 투자회수가 어려움</li> <li>- 기존 창업보육 센터는 SW전문가 클러스터 육성에 부적합</li> </ul>
자본 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자본 : 지속적 인큐베이션 불가, 투자가 아닌 용자위주</li> <li>- 민간자본 : SW기업의 M&amp;A 미미하여 회수수단 제약, 약한 VC네트워크</li> </ul>
기술/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비)창업가 - 우수SW기술인력 만남 어려움</li> <li>- 경력자 창업 비율 낮음</li> </ul>

# SW스타트업 이슈 및 대안

- 창업자와 투자자 관점 문제점 → 공통사항을 연구이슈로 선정

## 창업자 관점 문제점

## 투자자 관점 문제점



## • 이슈별 원인 및 대안 탐색

이슈	원인	대안
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	저작권 보호 미흡, 인구 부족	1) SW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
SW사업에 불리한 시장환경	외산SW패키지 우세, 인건비 사업	2) SW신시장 내수 촉진
M&A 비활성화	M&A보다 자체개발 유리 합병 후 통합 어려움	3) SW기업 M&A매력도 제고
위험감수 창업자 부족	실패위험으로 취업 선호	4) 실패 창업자 재기 가능성 제고
우수 SW개발자 확보난	SW인력의 양과 질 부족	5) SW인력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
진입장벽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	낮은 기술력으로도 쉽게 창업	6) SW경력자 기술창업 촉진

1순위

## • 1순위 : “SW경력자 기술창업 활성화”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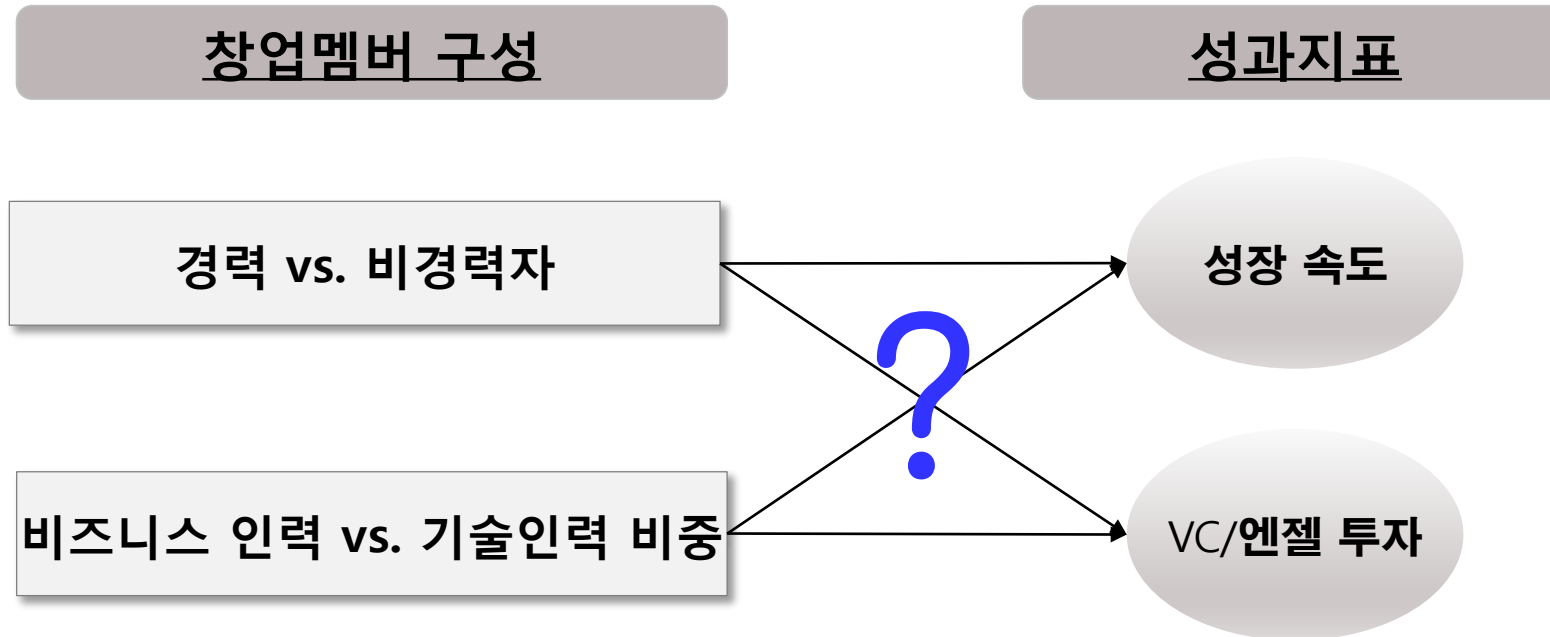
- 인터뷰 결과, 경력자 창업을 성공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

	비경력자 스타트업	경력자 스타트업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용제품/서비스로서 초기부터 경쟁에 노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영역에서 성공사례 확보 후 진입장벽 구축</li> </ul>
핵심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력, 기획력이 핵심역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력 및 <b>고객/제휴관계</b>가 핵심역량</li> </ul>
장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자금의 외부지원 필요</li> <li>실패 후 재기 가능성 높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창업자금을 스스로</b> 조달할 가능성 높음</li> <li>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(연령, 직무에 따른 차이 존재)</li> </ul>

**비경력자 vs 경력자 비교중신 스타트업 모델 분석 필요**

## • SW스타트업 160개 대상 조사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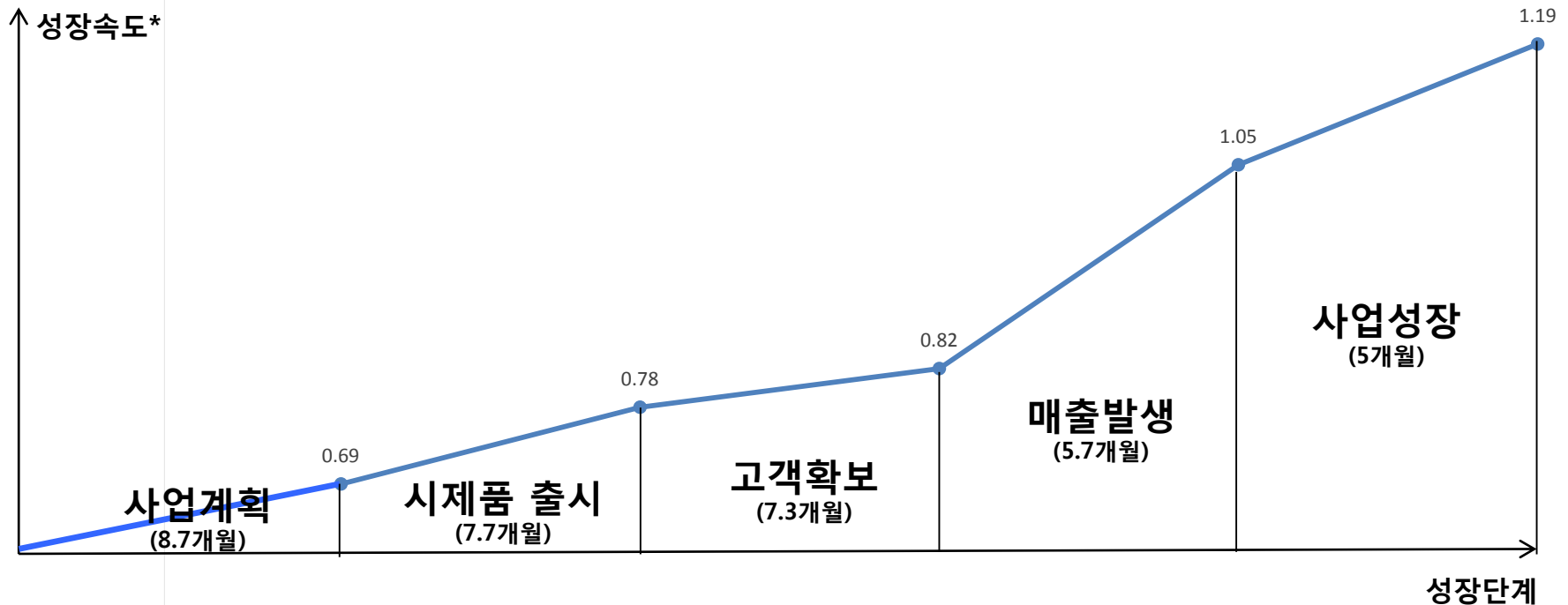
### - 창업멤버 구성에 따른 성과 차이 분석



- \* 조사개요
- 조사기관 : 오픈서베이
  - 시점 : '15년5월
  - 대상 : SW스타트업 창업자 160명

## • 성과지표1 : 성장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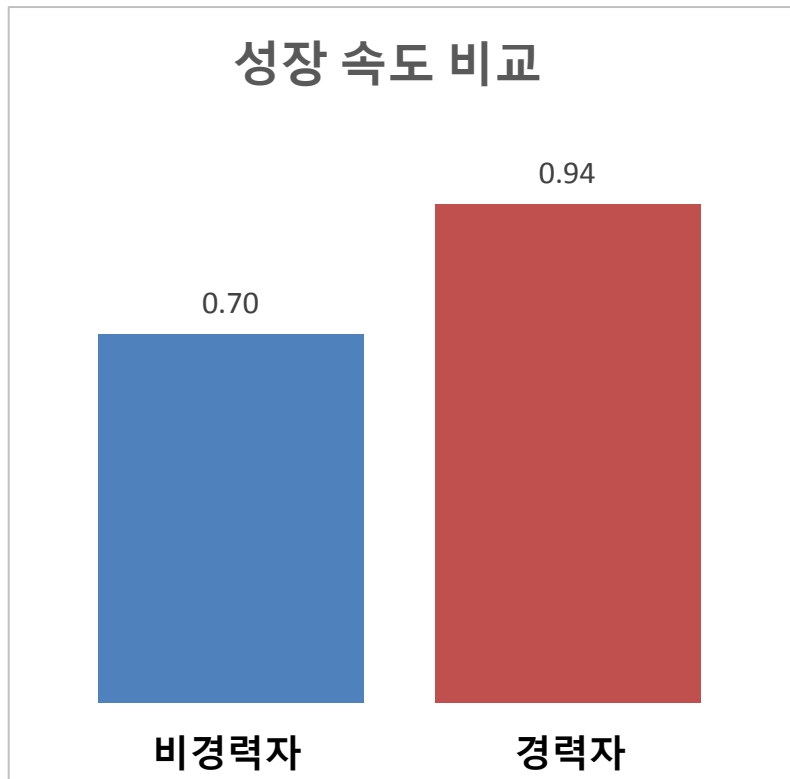
### - 160개 SW스타트업 성장단계 별 평균속도



- \* 스타트업 성장 속도
- 단위기간(6개월) 동안 통과한 단계 수
  - 공식 : 통과한 단계 수/단위기간(6개월)

- **성과지표1: 성장속도**

- **경력자 스타트업이 비경력자 스타트업에 비해 빠른 성장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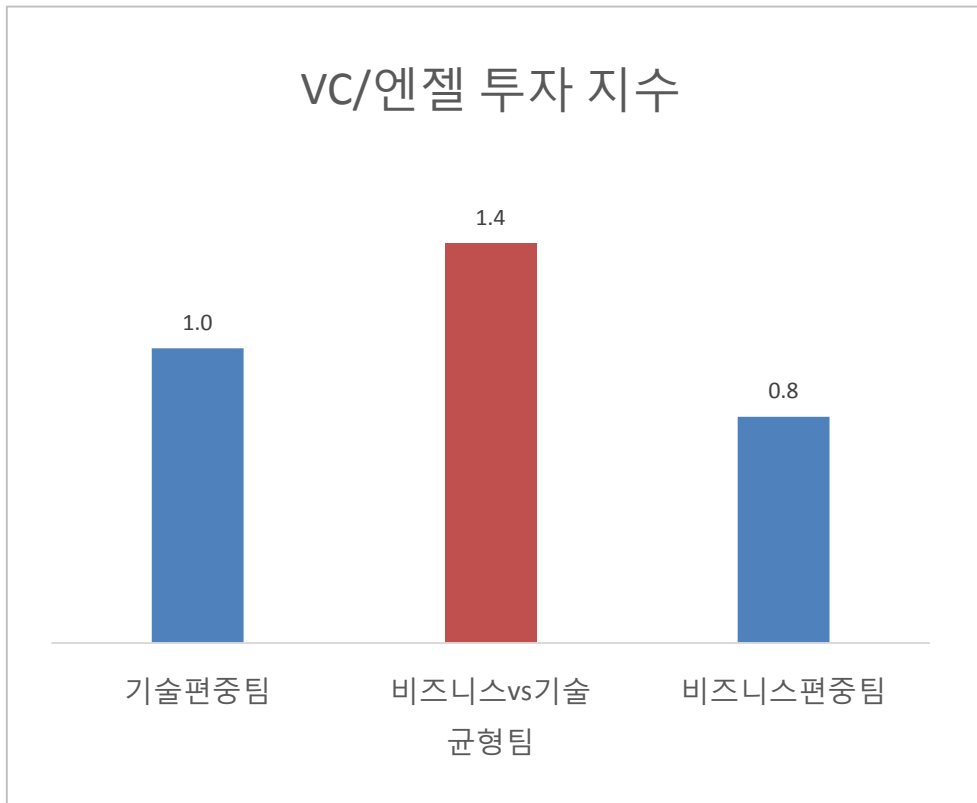
- 비경력자 스타트업의 성장속도 : 0.7(8.6개월)  
VS  
경력자 스타트업 성장속도 : 0.94(6.4개월)

※ 비경력자 기준 : 경력 기간 1년 미만



## • 성과지표2: VC/엔젤 투자

- 비즈니스 인력 vs 기술인력 간 균형있는 비중을 가진 스타트업이 더 많은 VC/엔젤투자 유치



- 기술편중 vs. 비즈니스 편중 기준
  - 기술 편중 : 기술인력 비중 75% 초과
  - 비즈니스vs기술 균형 : 25~75%
  - 비즈니스 편중 : 25% 미만
- VC/엔젤 투자 지수 계산 기준
  - VC/엔젤 투자금액의 창업자금 내 비중
    - . (1위) 3점 → (2위) 2점 → (3위) 1점
    - ※ 최초자금과 2차 투자를 모두 포함함

# 그러나, 정부 창업지원 사업은...

## • 비경력자 지원에 편중된 경향

- '창업은 청년, 대학생' 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 Signal 우려

분 류	사 업 명	예 산 (단위:억원)	지원 수
아이디어 · 기술창업 지원	청년창업사관학교	260	280
	창업맞춤형 사업 - 창업자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	423	650
	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	75	80
	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- 해외 현지창업지원	33	60
	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- 외국인 국내창업지원	20	30
	창업선도대학육성 - 창업아이템 사업화	652	800
	대한민국 창업리그-슈퍼스타V(왕중왕전)	15	90
	민 · 관 공동 창업자 발굴 · 육성(창업기획사)	50	50
창업저변 확대	창업인턴제	50	70
	창업아카데미	20	1000
	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	43	2
	시니어창업 지원	45	33
	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- 리모델링	30	
	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- 운영비	122	
	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- 보육역량 강화	75	
	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	3,500	

※ 중기청 '15년 창업지원 사업내역

# 그러나, 정부 창업지원 사업은...

- 기술력이 뒷받침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창업도 독려

뉴스  
중기/벤처

OOO 창업 지원 “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”

## • SW경력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

### - 연령이 높을 수록 창업동기에 '기술능력 보유' 응답 비율 높음

. 20대(16.3%)에 비해 50대(30.1%)가 2배 높은 기술보유 응답

( 출처 :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, 2014 IT글로벌창업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)

### - 10대 IT대기업 임직원中 창업에 40%가 긍정적, 32%가 부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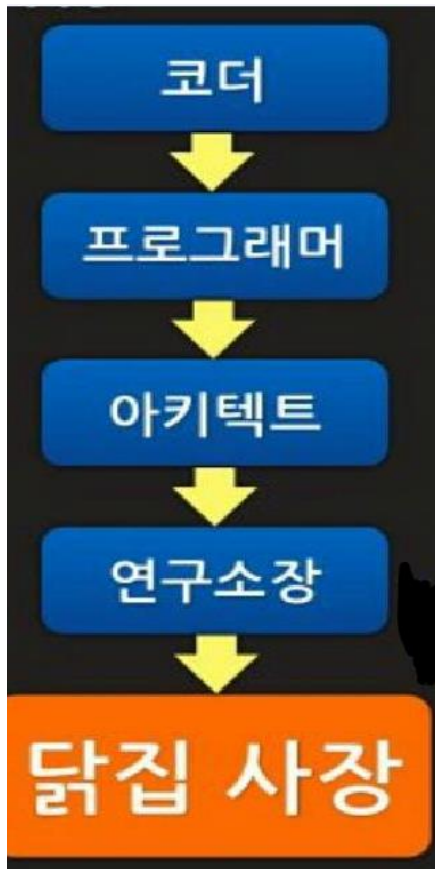
. 창업의사 비율은 3~7년 차(대리급)가 30.8%로 가장 높음

( 출처 : 오픈서베이&스타트업얼라이언스, Start-up Trend Report 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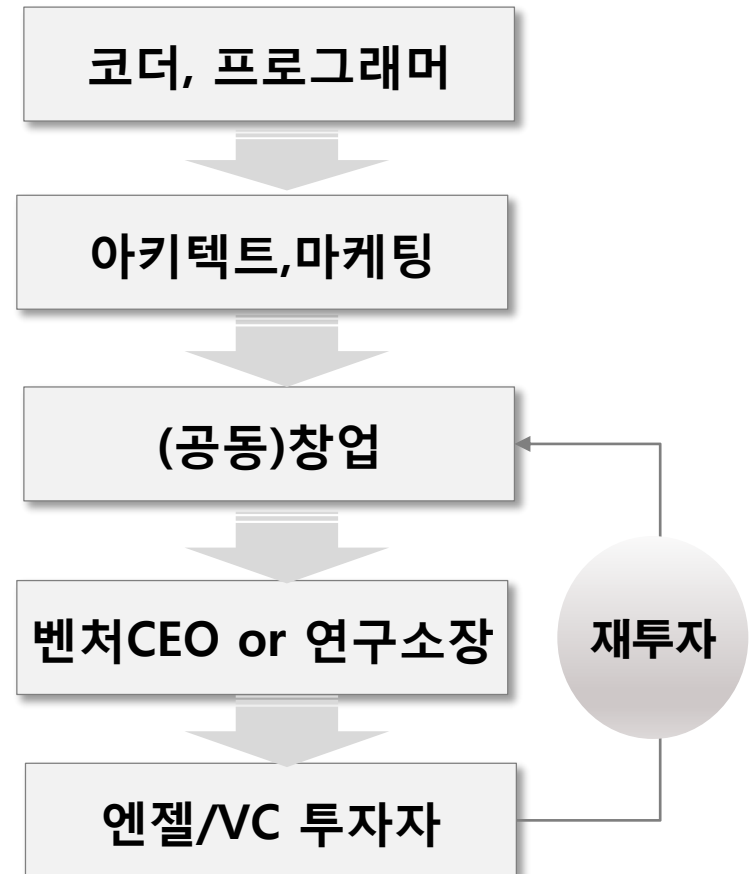
- 기존 기업에서 SW개발자 경력경로가 중단된 40대 이상 경력자의 경우, 스타트업을 통한 제2의 경력경로 제공

- 'SW경력자'를 'SW창업가'로

현재 : SW경력자의 끝은 자영업자



미래: SW경력자의 끝은 창업자/엔젤



( 출처 :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자료 )

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Think Tank



**SPRI**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
SOFTWARE POLICY & RESEARCH INSTITUTE



**유호석 선임연구원**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  
E. spri@spri.kr T. 070-4915-8800 F. 031-739-7199